

2019년 문화예술교육거점 운영단체(모나드, 음성생활문화예술공간 하다, 문화학교 숲)는 공동 해외리서치 과정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시각미술, 공연·연극, 놀이 등 각자의 분야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거점을 탐방하였다.

이 리서치 과정은 단체가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거점으로 역할 하는데 좋은 탐구사례가 되었고, 2020년과 앞으로의 계획에 많은 부분을 참고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후기가 많았다.

이들 단체가 참고한 *네덜란드의 문화예술거점들은 어떤 곳들일까.*

1 암스테르담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모카(MOCCA)



모카(MOCCA 이하 모카)는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문화교육센터이다.

모카는 암스테르담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문화예술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주로 학교문화예술교육현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모카는 지역의 예술가들을 만나고 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阿姆斯特담의 학교들에 문화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만들어낸다. 문화코디네이터들은 서로 네트워킹을 활동으로 토론회를 여는 등의 정기 모임을 갖고 예술 강사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에 연구하고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阿姆斯特담의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필요성 인식 차이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시행되었던 주된 이유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민자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언어적으로 환경적으로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데 주요 맥락이 있었다. 모카의 담당자와 나누었던 대화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지점은 관련 종사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였다. 공모와 경쟁형태로 일관되는 지원방식에 익숙한 우리 사회와 달리 모카는 원하는 예술가면 ‘누구나’ 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소개하였다.

다만 우리 사회와 달리 제도적, 사회적 합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대하는 현장의 성립은 단순 문화예술교육 현장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졌다.

2 암스테르담

문화적 재생 공간

<디홀렌
De hallen>



디홀렌 내부



디홀렌 푸드코트



디홀렌 메이커스토어 작업실



디홀렌 입주기업(그래픽디자이너 공간)

옛 트램차고를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곳으로 현재는 미술, 패션, 공예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공간

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옛 흔적들을 보존한 건물에 편집샵, 도서관, 영화관, 디자인 스튜디오, 푸드코트 등이 한 곳에 붙어있었다.

특히 <메이커스토어>라는 공간에는 예술과 상업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곳은 복층형으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1층은 미술 작품이나 디자인 상품을 살 수 있는 소매공간으로,

2층은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

또한 스타트업/공유 오피스 활성화로 로컬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공간이 곳곳에 있고,

리사이클과 지역문화자원 활용한 작품/굿즈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소비, 문화생활, 식사 등을 한곳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관광객이 많은 다른 곳에 비해 현지인 방문객들이 많은 곳이었다.

3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디스쿨
De school>



디스쿨 외부전경

3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디스쿨
De school>

초등학교로 쓰이던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카페, 레스토랑, 체육관, 공방, 사무실, 전시 등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는 복합공간이다.

그래서 공간의 이름도 학교라는 의미의 <디스쿨>이었다.

내부에는 예술가들이 관리 및 유지를 하고 있고 디스쿨 전반을 관리하는 사무실도 함께 있었다. 이곳은 재생의 관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현재 활용되는 사용처 중 <디스코 클럽>은 다소 충격적인 방법의 활용이었다.

초등학교 폐교 공간이 기관주도의 문화산업시설을 넘어 **젊은이들의 파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웠다.

유흥문화와 순수예술인, 디자이너, 레스토랑까지 벽을 두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다뤄지는 것은 분명 우리 사회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로 쓰이던 공간에서 유흥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상상은 우리 사회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지점인 이지 않는가. 아무래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개방적인 문화가 이런 현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합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4 네덜란드

뮤지움의 심장

라익스 미술관



라익스 미술관 도슨트 모습



라익스 미술관 도슨트

라익스 미술관은 박물관 성격이 강한 곳으로 방대한 양의 예술품들을 취급하는 곳이다. 따라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행해지는 어린이 대상 해설 프로그램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도슨트(어린이 대상 해설가)가 한저된 작품들 앞에서 직접 그림 속 사물 및 역사를 설명해주는 것을 필두고, **그림 속 실제 사물들이 들어있는 전용 가방을 저마다 가지고 다니며 아이들에게 만져보게 하거나 냄새, 촉감들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아이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활동으로 긴 시간 동안 한가지 작품을 깊게 해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직접 질문을 하거나 작품 내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은 우리의 미술관 예술교육에서 차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5 지역 예술가의
허브 뷔트드뷔트
현대미술관과 텐트



뷔트드뷔트 버스킹 공연



뷔트드뷔트 외부



뷔트드뷔트 전시장 비디오설치

로테르담의 뷔트드뷔트 미술관은 학교건물을 재생하여 만들어진 현대미술관이었다.

이곳은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이 곳 또한 관객 참여형 미술이 함께하고 특정 공간에서는

서점과 버스킹 공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이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지역예술인과 타 지역을 잇는 아트플랫폼 ‘텐트(TENT)’의 근거지*

라는 것이다. 텐트에서는 영국의 테이트모던 현대미술관과 협업하여

*문화 전반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거나 예술가 교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거점이 할 수 있는 허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1층에서는 작가들의 굿즈나 포트폴리오, 소규모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미술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다루는 공간이었다.

작품의 성격들이 시각적 형태를 벗어난 개념적, 체험적 형태로 전시하였고 ‘

예술은 더 이상 시각에 머무르지 않는다.’ 문구와 함께 진행되고 있던

체험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문화의 발생에 관한 책 <문화는 어디에서 오는 가?>

출판, 판매되고 있었고 지역과 타 지역을 잇는 예술 교류 활동은

지역의 문화거점들이 표방 해야하는 지점을 제시하는 사례로 보여졌다.



퀴트드퀴트 화장실 안내

네덜란드의 문화공간은 대체적으로 복합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재생공간을 활용한 곳이 많았는데 이곳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다양한 요소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위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영역이 완전히 섞이는 것은 경계하는 듯 싶었는데,

*예술가의 작업공간, 전시공간을 분리하고 관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식사를 해결하며 공연을 즐기고 쉬인 듯 분리된 환경조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네덜란드의 미술관들은 상위기관을 찾기 어려울 만큼 협력이 잘 되고 있었다.

특히 라익스 미술관을 비롯한 스테델릭 현대미술관, 모코미술관, 반고흐미술관 등은 마치 시대를 연결하듯 동선이 하나로 이어져있었다.

기관이 밀집되었을 때 종종 생겨나는 사일로 현상(부서간 경쟁으로 인한 이기주의)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카와 뷔트드뷔트 미술관과 같이 허브적 역할의 거점은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한 공간으로 생각되었다.

다만 이들이 하는 활동이 지금처럼 구성되기까지의 *많은 사회적 합의는 단기간에 이루기 힘들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불가능으로만 여기고 있던 활동을 제도적 한계의 탓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사례를 토대 삼아 조금씩 혁신적으로 발전하여 만들어지는 문화예술거점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해본다.